

2019년 9월 19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노련한 파월 의장 발언 후 낙폭 축소 파월 “예상보다 빠르게 대차대조표 확대 재개 필요성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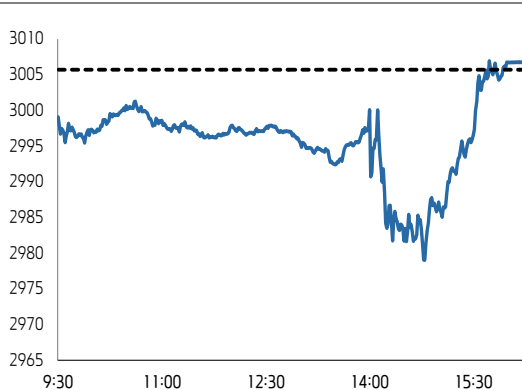
### 자산매입 재개 카드 꺼내든 파월의장

미 증시는 FOMC 를 앞두고 하락 출발했으며, 결과가 발표된 이후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음.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사했으나 여전히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도 많았기 때문.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예상보다 빨리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 재개가 필요” 언급 후 상승 전환하는 등 안정 속에 혼조 마감(다우 +0.13%, 나스닥 -0.11%, S&P500 +0.03%, 러셀 2000 -0.63%)

미 연준은 25bp 의 금리를 인하(1.75~2.00%). 한편,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경제활동도 적당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2.1%→2.2%). 그럼에도 인플레이가 여전히 목표인 2%를 하회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금리를 인하했다고 주장. 더불어 경제확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 한편, 점도표를 보면 올해 추가 금리인하를 주장한 위원은 7명, 동결은 5명, 1 차례 금리인상도 5명으로 인상-동결-인하가 팽팽한 모습. 이 결과가 알려진 직후 매물 출회되며 낙폭 확대.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중간 조정’을 언급했으나, 무역분쟁으로 성장 둔화와 기업 투자 및 수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사. 특히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면 더 ‘폭넓은’ ‘연속적인’ 금리인하도 가능하다고 주장. 그러나 경제활동 확장세가 관찰되고 있으며, 여전히 고용과 소비 개선이 이어지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이런 가운데 파월은 “예상보다 빨리 대차대조표 확대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 결국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으나,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완만한 금리 조정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특히 대차대조표 확대 재개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유동성 공급 기대를 높임. 미 증시는 파월 의장 발언 특히 대차 대조표 확대 발언 이후 낙폭 축소 후 혼조 마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070.73	+0.41	홍콩恒生		26,754.12	-0.13
KOSDAQ		645.12	+0.13	영국		7,314.05	-0.09
DOW		27,147.08	+0.13	독일		12,389.62	+0.14
NASDAQ		8,177.39	-0.11	프랑스		5,620.65	+0.09
S&P 500		3,006.73	+0.03	스페인		9,031.70	+0.31
상하이종합		2,985.66	+0.25	그리스		872.58	+1.24
일본		21,960.71	-0.18	이탈리아		21,947.70	+0.6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강세

JP모건(+1.00%), BOA(+0.20%), 씨티그룹(+0.86%), 웰스파고(+0.33%) 등 금융주는 다소 매파적인 FOMC 결과 올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전일 실적을 발표한 어도비 시스템즈(-1.75%)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향 조정된 가이드언스 발표로 하락 했다. 그러나 물류회사인 페덱스(-12.92%)는 부진한 실적과 약한 가이드언스 발표로 급락 했다. 특히 페덱스의 경우 미-중 관세 부과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부담이 되었다. UPS(-1.14%)도 동반 하락 했다. 코노코필립스(-1.98%)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넷플릭스(-2.36%)는 스트리밍 산업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하락 했다. 특히 애플(+0.94%)과 아마존(-0.28%), 디즈니(+0.34%) 등과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부담이 되었다. 한편, 애플은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코닝에 대한 투자가 향후 폴더블폰 출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55%	대형 가치주 ETF(IVE)	+0.10%
에너지섹터 ETF(OIH)	-2.98%	중형 가치주 ETF(IWS)	-0.19%
소매업체 ETF(XRT)	-1.01%	소형 가치주 ETF(IWN)	-0.67%
금융섹터 ETF(XLF)	+0.35%	대형 성장주 ETF(VUG)	+0.06%
기술섹터 ETF(XLK)	-0.01%	중형 성장주 ETF(IWP)	-0.1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8%	소형 성장주 ETF(IWO)	-0.54%
인터넷업체 ETF(FDN)	-0.49%	배당주 ETF(DVY)	-0.03%
리츠업체 ETF(XLRE)	-0.3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8%
주택건설업체 ETF(XHB)	+0.0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4%
바이오섹터 ETF(IBB)	-0.71%	미국 국채 ETF(IEF)	+0.04%
헬스케어 ETF(XLV)	-0.01%	하이일드 ETF(JNK)	-0.04%
곡물 ETF(DBA)	0.00%	물가연동채 ETF(TIP)	-0.31%
반도체 ETF(SMH)	+0.11%	Long/short ETF(BTAL)	+1.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3.64	-0.42%	+1.47%	+7.02%
소재	366.17	+0.08%	+1.00%	+3.81%
산업재	664.01	-0.14%	+0.26%	+6.05%
경기소비재	961.50	-0.07%	-0.45%	+3.83%
필수소비재	620.29	+0.02%	-0.84%	+0.56%
헬스케어	1,054.84	+0.01%	-0.27%	+0.74%
금융	471.88	+0.43%	+1.35%	+7.66%
IT	1,423.27	+0.07%	-0.04%	+2.79%
커뮤니케이션	171.35	-0.08%	-0.24%	+3.85%
유틸리티	321.72	+0.47%	+1.01%	+3.28%
부동산	242.95	-0.31%	+1.37%	+1.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상승세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6% MSCI 신흥 지수 ETF 도 0.4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324 계약 순매도 했으나 0.05pt 상승한 273.4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0.6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FOMC 결과 직후 연준의 신중한 움직임이 이어지며 하락했다.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예상보다 빨리 대차대조표 확대할 수 있다며 유동성 공급을 시사한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여기에 경기가 위축되면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는 등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을 이어가게 만든 점도 우호적이다. 결국 연준 발표는 시장 기대를 약화시켰으나, 파월 연준의장이 자산매입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오늘부터 미-중 실무급 무역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주 트럼프가 '스몰딜'을 시사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무역분쟁과 관련 어떤 방향이나 시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려하는 최악의 경우인 미-중 무역협상 취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 관련 이슈는 중립 이상의 이슈라 할 수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 지표 개선

8 월 미국 주택착공건수는 전월(121.5 만건)이나 예상(125.1 만건) 보다 증가한 136.4 만건을 기록했다. 허가건수도 전월(131.7 만건)이나 예상(130 만건)을 상회한 141.9 만건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견고한 고용과 모기지 금리 하락이 이어지자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가 많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하락세 이어져

국제유가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언급 했으나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경우 가솔린 가격 급등을 불러 올 수 있어 트럼프가 군사적인 행동 보다는 경제제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했다. 이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매물을 불러왔다. 여기에 EIA 가 지난 주 원유재고에 대해 시장 예상(-270 만 배럴)과 달리 106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매파적인 FOMC 결과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다만,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으로 강세폭이 제한되었다. 한편, 중국 역외 위안화를 비롯해 남아공 란드화 등 일부 신흥국 환율은 파월이 유동성 공급을 언급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으나, 공격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완화 시키는 성명서 내용으로 단기물이 상승하는 등 혼조 양상을 보였다. 다만 장기물의 경우 파월이 예상보다 빨리 대차대조표 확대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여파로 하락 했다. 한편, CME FEDWatch 는 12 월 금리 동결 확률을 42%로 제시했다.

금은 FOMC 앞두고 상승 했다. 그러나 시간 외로 1% 가까이 하락 중이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62%, 철근도 1.25%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8.11	-2.07	+4.23	Dollar Index	98.582	+0.33	-0.06
브렌트유	63.60	-1.47	+4.59	EUR/USD	1.103	-0.39	+0.18
금	1,515.80	+0.16	+0.84	USD/JPY	108.45	+0.30	+0.58
은	17.919	-1.22	-1.38	GBP/USD	1.2472	-0.22	+1.18
알루미늄	1,785.50	-0.36	-2.16	USD/CHF	0.9974	+0.43	+0.45
전기동	5,814.00	-0.12	+0.72	AUD/USD	0.6828	-0.55	-0.50
아연	2,320.00	-1.23	-1.82	USD/CAD	1.3289	+0.34	+0.72
옥수수	371.25	+0.88	+3.13	USD/BRL	4.1105	+0.83	+1.04
밀	489.50	+1.08	+2.51	USD/CNH	7.0833	-0.04	-0.36
대두	888.75	-0.56	+2.57	USD/KRW	1191.30	+0.05	-0.14
커피	100.35	0.00	-2.95	USD/KRW NDF1M	1190.60	+0.35	+0.0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96	-0.52	+5.76	스페인	0.224	-5.80	-2.70
한국	1.457	-3.60	+10.20	포르투갈	0.235	-7.10	-2.70
일본	-0.182	-3.00	+1.70	그리스	1.377	-11.00	-26.50
독일	-0.510	-3.60	+5.40	이탈리아	0.873	-4.60	-9.50